맨유 굴욕…번리에 41년만에 패

박지성 시즌 첫 풀타임 활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0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번리의 터프 무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 FC와의 프리미어리그 1부리그 경기 중 번리의 웨이드 엘리어트를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시즌 처음으로 출격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41년 만의 충격적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박지성은 2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랭커셔주 번리의 터프무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번리와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16일 버밍엄 시티와 시즌 개막전에 결장해 아쉬움을 남겼던 박지성은 이날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며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다.

그러나 맨유는 전반 19분 번리 미드필더 로비 블레이크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맨유가 번리에 진 것은 지난 1968년 9월 이후 41년 만이다.

박지성은 경기 초반부터 슈팅을 날리며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전반 3분 박지성은 동료 캐릭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하며 슛 감각을 조율했다.

후반에도 박지성은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맨유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다.

후반 22분 아크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 강슛을 날렸지만 번리 골키퍼가 넘어지며 가까스로 막아냈다. 후반 34분 박지성은 왼쪽 사이드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했다.

박지성의 활약에도 맨유는 번리에 첫 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번리의 블레이크는 전반 19분 문전에서 경합 중이던 공중볼이 자신에게 흘러나오자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맨유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맨유는 전반 43분 브라운이 문전으로 돌파하다 블레이크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캐릭이 실축하면서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렸다.

맨유는 후반에도 공격을 시도했지만 끝내 골을 뽑지 못했다.

1975-1976 시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마지막 해였던 번리는 이후 맨유와 리그컵에서만 세 차례 맞붙었지만 모두 패했었다. /연합뉴스

"한국 탁구 미래 맡겨주세요" 남자 탁구 유망주 정영식(부천 중원고)이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09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서 드라이브 공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고 심한솔 금빛 스트라이크

협회장배 볼링 마스터즈 우승

광주 첨단고 심한솔(1년)이 전국 정상에 올랐다.

팀 막내 심한솔은 20일 전북 익산 한성볼링장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남고부 마스터즈 결승에서 조연식(대구 개성고)과 접전을 펼친 끝에 1점차로 제치고 역전승을 거둬 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심한솔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종합·2인조전 2위, 3인조전 3위 등 금 1·은 2·동 1개를 획득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광주대표인 심한솔은 이번 우승으로 10월 전국체전서도 금빛 선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경기는 숨막히는 접전이었다. 막판까지 조연식과 2천22점 동점으로 팽팽한 경기를 펼친 심한솔은 연장(9·10 재경기)들어 뒤지다 막판 10프레임서 스트라이크 3개를 성공시켜 50-49 1점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신장 175cm의 좋은 체격조건을 갖춘 심한솔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파워있는 회전과 스피드를 구사하는 차세대 볼링 기대주로 떠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

배드민턴 스타 라경민 2년만에 코트 복귀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스타 라경민(33)이 2년 만에 코트로 돌아온다.

대교눈높이여자배드민턴단은 20일 "라경민이 친정팀인 대교눈높이로 복귀해 내달 6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가을철종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라경민은 김동문과 혼합복식에서 호흡을 맞추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다. 국제대회 70연승, 14개 대회 연속 우승 등의 대기록을 세웠다.

2007년 2월 은퇴한 라경민은 2005년 결혼한 김동문을 따라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다. 현지에서 '김동문 인터내셔널 배드민턴 아카데미'에서 선수들을 지도해왔다.

라경민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웠다"며 "가을철대회와 전국체전에서 뛰며 기량을 점검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김지석, 생애 첫 타이틀

물가정보배 '거목' 이창호 꺾어

타이틀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광주 출신 김지석이 '거목' 이창호를 쓰러뜨리고 생애 첫 타이틀을 따냈다.

김지석 5단은 지난 1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기 한국물가정보배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이창호 9단에게 흑으로 280수만에 1집반승을 거둬 종합전적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1국에서 이창호의 '전공 과목'인 끝내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역전승했던 김지석은 이날 대국에서는 초중반부터 적극적인 수를 구사하며 국면을 리드했다.

우변과 하변전투에서 착실하게 실리를 챙긴 김지석은 두터움을 택한 이창호에 중반까지 앞섰다. 비세에 빠진 이창호의 거센 반격에 김지석은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국면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집반의 힘겨운 승리를 낚았다.

이로써 김지석은 데뷔 6년만에 타이틀 홀더로 이름을 올렸다.

우승상금 2천500만원을 받은 김지석은 승단 규정에 따라 1단이 오른 6단이 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연합뉴스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 전남 복귀 임박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28·전남)가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 처음으로 연습 경기에 투입되면서 조만간 경기에 뛸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 드래곤즈는 20일 "곽태휘가 19일 동와대와 연습경기에서 전반 25분 유지노와 교체 투입됐으며, 이후 중앙 미드필드에서 20분간 공수를 조율하며 경기 감각을 익혔다"라고 전했다.

곽태휘는 전반을 마친 뒤 "아직 몸이 회복 중이지만 경기를 뛰니 기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를 다쳤던 곽태휘는 그 다음 달 독일 레버쿠젠으로 건너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서울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팀에 복귀했다.

곽태휘의 복귀가 임박함에 따라 현재 치열한 6강 경쟁을 벌이는 전남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트로피 디자인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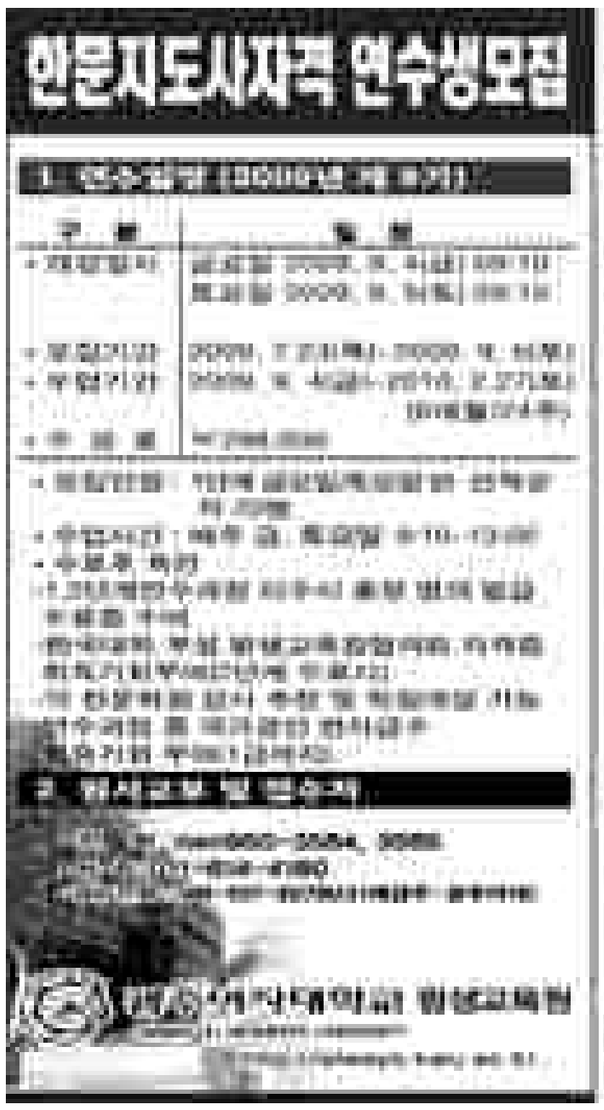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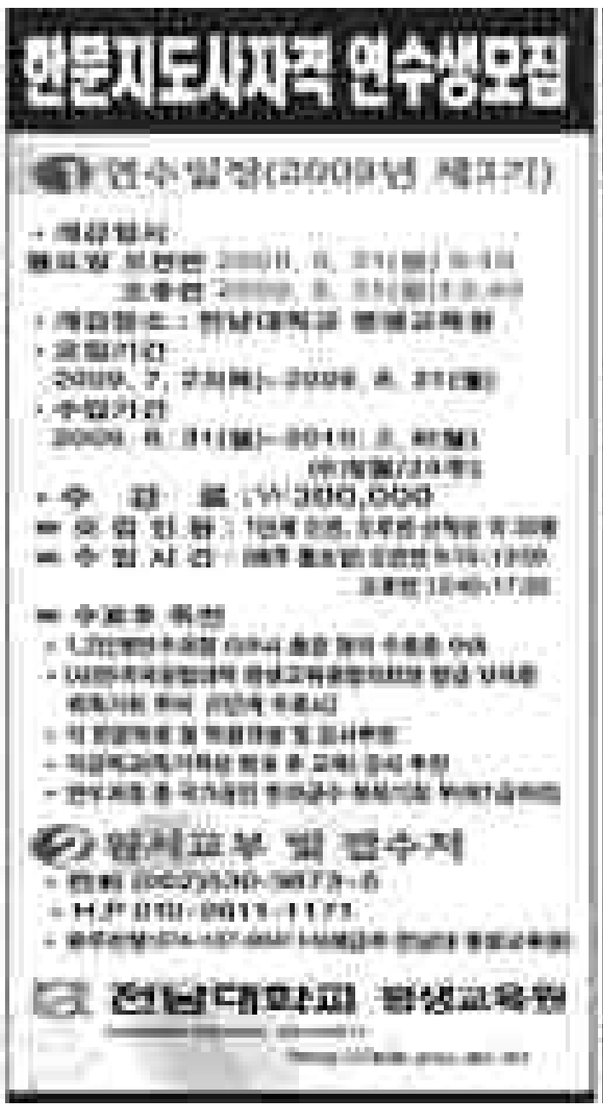
대한축구협회는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트로피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면서 축구를 즐기는 '플레이,스터디,인조이'(Play, Study, Enjoy)라는 초중고 리그의 기본 정신을 디자인에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평가한다.

공모 참가자는 축구협회 경기국 디자인공모전 담당자에게 31일까지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하며, 당선작을 낸 팀(또는 개인)은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스포츠캘린더

21일(금)

▲프로야구 〈삼성 : 두산〉(18 : 10·KBSN SPORTS), 〈KIA : SK〉(18 : 20·MBCESPN), 〈LG : 롯데〉(18 : 15·SBS스포츠), 〈한화 : 히어로즈〉(18 : 15Xports)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23 : 25·Xports)